

잃어버린 30억년을 찾아서 용어집



3주차

학습에 필요한 용어를
정리한 용어집입니다.

3주차 용어집

3-1. 공통발굴과정 (1) 화석 발견

복원

예전에 손상되거나 파손, 소멸, 사라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

암석

광물 또는 준광물이 자연적으로 모여 이루어진 고체

광물

광물은 자연산 무기물이며 규칙적인 결정 구조와 명확한 화학 구성을 갖는 고체를 뜻하며, 암석을 구성하는 단위이다. 미네랄(mineral)이라고도 한다. 자연산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거나 합성된 물질은 제외되며,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비결정질 물질은 제외된다. 무기물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해양생물들이 만들어 낸 탄산칼슘이 쌓여 집합체를 이룬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광물로 인정이 된다.

퇴적구조

퇴적암에 생성되는 구조로서 흔히 퇴적작용과 동시에 형성된 일차적인 구조를 가리킨다. 층리, 연흔, 저흔, 접이층리, 우흔, 생흔이 포함된다. 드물게는 퇴적 후에 형성된 이차적인 구조까지를 가리키기도 한다.

화석

지질시대의 퇴적암 안에 퇴적물과 함께 퇴적된 동식물의 유해나 흔적을 화석이라고 한다. 대다수의 화석은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단단하다.

성체

동물에서 개체발생이 완성되어 생식이 가능하게 된 개체로 척추동물에서는 성체가 되기 전에 유형의 시기가 있다. 유형에서 성체가 될 때에는 척추동물의 시상하부에서 변화가 일어나 그 영향이 뇌하수체전엽에 작용하여 생식선이 성숙한다.

발굴

일반적으로는 땅속에 파묻힌 것을 파내는 일을 뜻하지만, 고고학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유물·유적(遺蹟)을 파내어 지상으로 드러내는 일.

실측

측량 기구로 현장을 실제로 측량하는 것. 노선측량에서 예측결과에 의하여 실시하는 현장측량. 도면상 약어는 「F.S.」

3-1. 공룡발굴과정 (3) 석고재킷 감싸기

석고

단사정계의 광물이다. 섬유석고, 설화석고가 있다. 시멘트 혼재, 비료, 의료용 깁스 등에 쓰인다.

석고재킷

공룡뼈를 감싸고 있는 암석을 보호하여 연구실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석고로 암석 주변을 감싸는 것

3-1. 공룡발굴과정 (6) 화석분리 및 보존처리

퇴적층

퇴적암은 광물조성, 입자의 크기, 배열, 구조에 따라 층리가 나타난다. 독특한 층리를 기준으로 각각의 층을 구분하게 되는데 퇴적층은 이러한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층이 모여 있는 지층을 말한다.

3-1. 공룡발굴과정 (8) 복원 및 전시

익룡

익룡은 "익룡" 분지군, 혹은 "익룡"목에 해당하는 하늘을 나는 파충류였다. 익룡은 트라이아스기 후기에서부터 백악기가 끝날 때까지 (2억 2800만 년에서 6600만 년 전 사이) 생존했다. 익룡은 알려진 척추동물 중 가장 먼저 동력비행(powerd flight)을 진화시켰다. 익룡의 날개는 피부, 근육, 그리고 기타 조직이 막(membrane)을 구성하고 있으며, 엄청나게 길어진 네번째 손가락과 발목 사이를 이어준다. 초기의 익룡들은 턱이 길고 많은 수의 이빨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중에 나타난 종류들은 꼬리가 매우 짧았고 이빨이 없는 종류도 있었다. 많은 익룡들의 피부는 피크노파이버로 알려진 섬유로 마치 포유류의 털과 비슷하게 몸과 날개의 일부에 덮여 있었다. 익룡의 성체 크기는 아주 작은 네미콜롭테루스에서부터 하늘을 날던 동물 중에선 가장 컸던 퀘찰코아틀루스와 하체고프테릭스까지 매우 다양했다.

3-2. 과거를 밝힌다, 공룡복원 (1) 몸체 복원의 중요성

코리아노사우루스 (코레아노사우루스(Koreanosaurus))

우리나라에서 코리아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 발견된 건 1979년도 이다. 이때 학명을 '코리아노사우루스(Koreanosaurus)' 라고 명명했다가 1993년도에 세계고생물학회 등지에서 코리아노사우루스가 데이노쿠스의 일종으로 밝혀져서 1993년도에 '데이노니쿠스 코레아넨시스(Deinonychus Koreanensis)'라고 정확히 이름이 붙여졌다.

이구아노돈(Iguanodon)

‘이구아나의 이빨’이라는 뜻으로, 1822년 영국인 의사 기디온 멘텔이 자신의 부인이 발견한 이빨 화석을 연구하다가 이구아나의 이빨과 비슷해 이름을 붙였다. 처음에 코 위에 있는 뿔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앞발가락의 발톱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무리 지어 살았고, 성격은 온순했으며, 평평한 이빨로 나뭇잎, 구과류(열매) 등을 먹었다. 보통은 네 다리로 걸어 다녔으나 나무 위의 먹이를 찾을 때나 특별한 경우에는 뒷발만으로 걸었다. 튼튼한 앞발에는 다섯 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그 중 첫째 발가락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육식 공룡을 물리치는 데 쓰였다. 뒷다리의 발가락은 세 개이다.

3-1. 공룡발굴과정 (2) 깃털공룡의 복원

깃털공룡

수백 년 동안 우리는 공룡이 비늘로 뒤덮인 파충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96년 발견된 작은 새를 닮은 생명체가 공룡에 대해 오랫동안 믿어왔던 상식을 깨뜨리고 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들, 눈길을 끄는 화려한 깃털, 집에서 새끼를 키우는 아빠새들과 같은 자세 등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고 있다.

안키오르니스(Anchiornis)

가장 크기가 작은 공룡 중의 하나다. 아르케옵테릭스(Archaeopteryx)보다 앞선 시기에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미크로랩토르(Microraptor)

아시아 대륙에 살던 깃털 달린 육식 공룡이다. 화석은 중국 랴오닝(遼寧) 성에서 발견되었고, ‘미크로(Micro)’라는 학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공룡 중에서 아주 작은 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작은 육식 공룡은 몸길이가 60센티미터인 콤프소그나투스(Compsognathus)인데, 이보다 작았을 수도 있다.

유수

손톱을 만큼 두드러지거나 흘렁함.

3-3. 공룡 전시 (1) 세계 공룡 전시관 및 박물관

바로사우루스(Barosaurus)

‘무거운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1890년 미국의 공룡학자 마시 교수가 이름을 지었다. 거대한 몸집에 목과 꼬리가 길었고 머리는 작았다. 육식 공룡의 공격을 받으면 채찍과 같이 긴 꼬리를 휘두르는가 하면 뒷발로 일어서서 위협하기도 했다. 입에는 머리 빗 모양의 이빨이 나 있어 나뭇잎을 긁어 모으기에 알맞았다. 성격은 매우 온순했고 무리를 지어 생활했다.

조바리아(Jobaria)

중생대 백악기 후기,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에 서식한 4족보행의 대형 초식공룡이다. 용반류-용각아목-조바리아과에 속하는 종이다. 전체 몸 길이는 약 20m~22m, 체중은 18t~20t가량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머리는 짧고 작다. 손가락 모양의 이빨을 하고 있다.

목은 두껍고 짧은 편이다. 네개의 다리는 기둥과 같이 단단하고 모두 같은 길이를 하고 있다.
등근 꼬리는 가늘고 길다.